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FinanceYahoo: 미 소매 판매 계속 상승
- Reuters: 10월 미국 수입 가격, 예상외로 상승
- WSJ: 파월 의장 “경제 견조하니 금리 인하 신중하겠다”
- WSJ: 보스턴 연준 총재 “12월 회의 금리 결정 아직 아니다”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트레이더들, 12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... 파월 의장 신중론에

[트럼프 행정부]

- Bloomberg: 공화당 완승으로 트럼프 감세안 적극 추진
- Bloomberg: USTR “중국 쇼크' 피하기 위해 표적 관세 필요”
- Bloomberg: JP 모건 CEO “트럼프 관세 위협, 사람들 테이블로 끌어들이 것”
- CNNBusiness: 트럼프, ‘전기차 세금 공제 프로그램’ 끝낼 수 있다

[주택]

- CNBC: 모기지율, 선거 이후 안정되고 있다

[중국 경제]

- Bloomberg: 중국, 경제 부양책으로 내수 증가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Bloomberg: GM, 비용 절감 위해 근로자 1천 명 감원 계획
- Reuters: 미국, 트럼프 복귀 전 TSMC에 66억 달러 규모 보조금 확정
- FinanceYahoo: 트럼프,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FianceYahoo: October retail sales top estimates, September spending revised sharply higher

미 소매 판매 계속 상승

- 10월 미 소매 판매가 전월에 비해 상승해 소비 활동이 계속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
- 소매 판매는 0.4% 상승해 블룸버그의 전문가 예상치인 0.3%를 상회했다. 9월의 소매 판매도 당초 전월에 비해 0.4%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으나, 0.8%로 상향 조정됐다고 연방통계국은 밝혔다.
- 특히 1.6% 상승한 자동차 판매가 10월 소매 판매의 상승세를 이끌었다.

- 자동차와 가스를 제외한 10월 판매는 0.1%에 그쳐 예상치 0.3%를 밑돌았다. 여전히 미 소비 경제는 건조한 상태로 분석된다.

FinanceYahoo 기사

Reuters: US import prices unexpectedly rise in October 10월 미국 수입 가격, 예상외로 상승

- 10월 미국 수입 가격이 예상외로 증가했다. 이는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가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. 이에 따라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줄어든 상태다.
- 연방노동부 통계청(Bureau of Labor Statistics)에 따르면 수입 가격은 9월 0.4% 하락한 후 10월에 0.3% 반등했다.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수입 가격은 0.8% 상승했다.
- 수입 연료 가격은 1.5% 상승했고, 식품 가격은 1.6% 하락했다. 핵심 수입 가격(연료와 식품을 제외한 수입 가격)은 0.4% 상승해 작년보다 2.2%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.

Reuters 기사

WSJ: Powell Says Solid Economy Allows Fed to Consider Rate Cuts 'Carefully' 파월 의장 “경제 건조하니 금리 인하 신중하겠다”

- 파월 연준의장은 최근 일련의 경제 지표가 건조하게 나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둔화 가능성을 포함하여 금리 인하를 계속할지 결정하는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.
- 그는 “현재 경제는 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할 지표를 보이지 않고 있다. 현재 경제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.”라고 덧붙였다.
- 투자자들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열리는 양일간 회의에서 금리는 예상대로 0.25% 인하하더라도 그 이후에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다음달 금리 인하는 가능성은 60%이며, 내년에 0.25%씩 두차례 인하할 것으로 CME Group은 예상하고 있다.

WSJ 기사

WSJ: Boston Fed President Says December Rate Cut Isn't a 'Done Deal' 보스턴 연준 총재 “12월 회의 금리 결정 아직 아니다”

- 보스턴 연준 총재인 Susan Collins는 12월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 이슈는 테이블 위에 있지만, 그렇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. 그는 현재

부터 12월 사이에 데이터를 추가로 살펴보고 판단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.

- 그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물가 압박이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. 또한 연준 정책이 아직 제약적인 수준이며, 이른바 중립 수준 쪽으로 계속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.
- 한편 이번 주 10월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다.

WSJ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Traders Trim Bets for December Fed Rate Cut on Powell's Cau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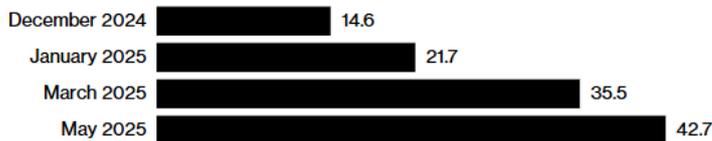
트레이더들, 12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... 파월 의장 신중론에

- 트레이더들은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줄였다. 금리 정책에 민감한 국채 금리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 발언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- 파월 의장이 어제 목요일 댈러스에서의 금리 인하 신중론을 언급하자 2년 물 국채 금리는 8베이시스 포인트 늘어난 4.36%를 기록했다. 스왑 트레이더들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당초 80%에서 60%로 줄였다.

Traders Grow Less Confident in December Rate Cut

Markets see less than 60% chance of quarter-point reduction next month

■ Cumulative easing priced for next few Fed decisions



Source: Bloomberg
Note: Data as of 3:35 p.m. New York time on Nov. 14.

Bloomberg 기사

[트럼프 행정부]

Bloomberg: Republican Election Sweep Emboldens Trump's Tax Cut Dreams

공화당 완승으로 트럼프 감세안 적극 추진

-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됨에 따라 트럼프의 감세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.
- 이에 따라 통과 사업 소득세(pass-through business income) 20% 감세 및 높은 재산세 감면을 제공해 온 트럼프 1기 당시 통과된 2017년 세금법의 만료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.

- 그동안 민주당은 회사와 연간 40만불 이상 버는 개인의 세금 감면을 철회하는 공약을 대선 캠페인 기간 주장했다.
- 공화당은 추가적인 법인세 감면과 종업원 팁의 연방 소득세 감면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.
- 한편, 현재 연방 적자는 올해 9월 30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1조8백30억 불에 달했으며, 향후 10년 동안 4조6천억달러로 증가할 예정이다.
- 그리고 트럼프의 공약대로 세금이 감면될 경우 추가로 7조7천5백억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련 비영리 단체인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은 추정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US Trade Chief Says Targeted Tariffs Needed to Avoid China Shock **USTR “‘중국 쇼크’ 피하기 위해 표적 관세 필요”**

-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 USTR로 있는 캐서린 타이는 자동차, 청정에너지, 반도체 등의 수입품으로 미국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을 막기 위해선 표적 관세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. 트럼프의 포괄적인 관세와는 다른 방식의 관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.
- 미국이 투자를 끌어들이고 싶은 부문에서 특정한 제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제2의 ‘중국으로부터의 충격’을 막기 위한 게임 플랜의 방어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.
- ‘중국으로부터의 충격’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미국의 의류, 전자제품, 기계류, 가구 등의 산업들에 피해를 주면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빼앗은 경제적, 사회적 피해를 말하는 용어다.
- 그는 어제 리마에서 개최한 아시아 태평양 협력 회의 도중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제2의 중국으로부터의 충격을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.
- 그는 트럼프가 사용하는 포괄적인 관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, 관세는 핵심 사업 보호 등 미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Dimon Says Trump’s Tariff Talk Will ‘Get People to the Table **JP 모건 CEO “트럼프 관세 위협, 사람들 테이블로 끌어들이 것”**

- JP 모건의 CEO인 Jamin Dimon은 “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위협은 사람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 것이다. 현명하게 이뤄지길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- 그는 트럼프는 무역에 반대하는 것이라 아니고, 많은 무역 관행이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리마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에서 말했다.

- 그는 “불공정한 것이 있을 경우 고쳐야 한다. 우리가 상대방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강화할 경우 보복이 뒤따른다.”라고 덧붙였다.
- 그는 그동안 2024년 미국 대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, 누가 되든 새 행정부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. 트럼프는 그를 트럼프 행정부에 영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CNNBusiness: Trump may end the \$7,500 EV tax credit. Elon Musk and Tesla would reap the rewards

트럼프, '전기차 세금 공제 프로그램' 끝낼 수 있다

-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7천5백 달러 세금 공제를 끝낼 수 있다. 그동안 세금 공제 덕분에 전기차는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다.
- 테슬라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로 이익을 내고 있는 유일한 자동차 제조업체이다. 그리고 보조금이 사라지면 오히려 테슬라는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.
-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면 테슬라도 손해를 보긴 하겠지만, 테슬라와 경쟁하던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더 큰 손실을 보고 경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. 즉,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.

CNNBusiness 기사

[주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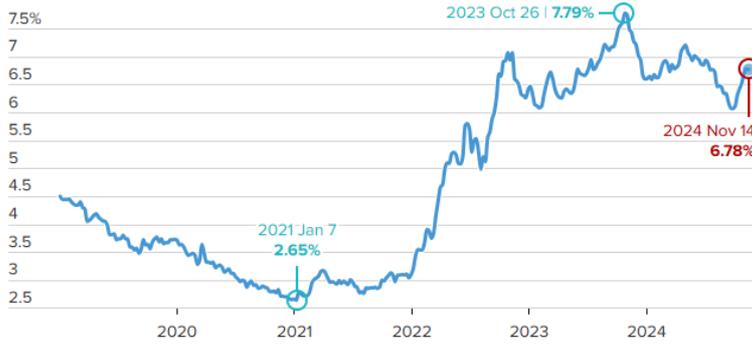
CNBC: Mortgage rates may be stabilizing after the election. Here's what to expect into early 2025

모기지율, 선거 이후 안정되고 있다

- 모기지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. 연준의 Freddie Mac 데이터에 따르면 미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율은 이번 주 6.78%로 소폭 하락했다.
- 모기지율은 올해 가을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하락했다가 트럼프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모기지율도 같이 상승했다. 여기에 트럼프의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기지율이 내려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.
-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Redfi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Chen Zhao는 “모기지율 변동성이 적은 건 좋은 신호일 수 있다. 변동성이 크면 국채 수익률보다 모기지율이 더 높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. 모기지율이 안정되면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예산 이상의 금리 변동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.”라고 말했다.

Average 30-year fixed rate mortgage in the U.S.

January 2019–November 2024



Note: Weekly average ending Thursday
 Chart: Ana Teresa Solá
 Source: Freddie Mac via FRED
 Average rate as of November 14, 2024



CNBC 기사

[중국 경제]

Bloomberg: China Stimulus Boosts Domestic Consumption as Trump Tariffs Lo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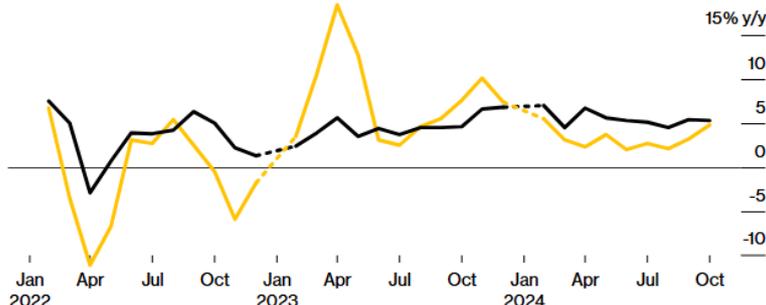
중국, 경제 부양책으로 내수 증가

- 중국 소비 증가율이 공장 생산량을 거의 따라잡으면서 균형 잡힌 상태로 4 분기를 시작했다.
-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 공격을 가하기 전에 중국 경제 부양책이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중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.
- 중국 국가통계국(National Bureau of Statistics)의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10월 소매 판매가 8개월 만에 빠르게 증가했다. 집값 하락이 둔화되는 등 다른 경제 부진 압박이 완화되는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다. 인프라 투자도 안정세를 보였고, 도시 실업률은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.
- BNP Paribas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Jacqueline Rong은 “이 미미한 회복세가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는 어떤 추가 정책을 시행하냐에 달려 있다. 더 많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.”라고 말했다.

China's Economy Stabilizes After Stimulus

Consumption growth hits eight-month high as factory output rises a tad slower

Industrial output value-added Retail sales



Source: China'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
 Note: Source combines Jan. and Feb. data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**Bloomberg: GM Plans to Cut 1,000 Salaried Workers in Bid to Reduce Costs****GM, 비용 절감 위해 근로자 1천 명 감원 계획**

- GM이 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약 1천 명의 직원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대부분 북미 지역에서 감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. GM은 8월에도 1천 명의 감원을 실시했었다.
- GM 대변인 Kevin Kelly는 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효율적인 운영과 적합한 팀 구조가 필요하다.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.”라고 말했다.
- GM의 CEO Mary Barra는 비용 절감을 위해 꾸준히 감원을 진행 중이며, 대신 전기차 및 발전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인재들을 채용할 여지를 만들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Reuters: US finalizes \$6.6 billion chips award for TSMC ahead of Trump return**미국, 트럼프 복귀 전 TSMC에 66억 달러 규모 보조금 확정**

- 미국 상무부는 오늘 금요일,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TSMC 미국 지사에 66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.
- 이는 2022년 만들어진 반도체 및 과학법(Chips and Science Act)에 따른 527억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하에 이루어진 첫 번째 주요 계약이다.
- TSMC는 2028년부터 두 번째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2나노미터 기술을 생산할 예정이다. 미 상무부 장관 Gina Raimondo는 TSMC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칩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.
- 미 상무부는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계약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.
- 이 프로그램에 총 360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으며, 그중 64억 달러는 텍사스의 삼성에, 85억 달러는 인텔에, 61억 달러는 Micron Technology에 배정될 예정이다.
-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.

Reuters 기사

YahooFinance: Moderna, Novavax stocks slide after Trump nominates Robert F. Kennedy Jr. to be top health official

트럼프,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

- 트럼프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로버트 F. 케네디 주니어를 지명했다.
- 케네디는 2024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했으나, 경선에서 탈락하고 트럼프를 지지했다. 트럼프는 10월 말 집회에서 “케네디에게 이 나라의 건강 관리를 맡길 것이다.”라고 발언했었다.
- 케네디는 백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. 케네디의 비영리 단체 Children’s Health Defense는 어린이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. 케네디는 “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은 없다.”라고 말했다.
- 케네디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Moderna, Novavax, 화이자 등 백신 회사들의 주식이 떨어졌다. Moderna와 Novavax의 주식은 지난 한 달간 30% 이상 하락했다.

FinanceYahoo 기사

[보고서]

**파월 신증론에 식은 기대감... "내년 미국 금리 동결" 전망도 나와
선물시장 12월 금리인하 가능성 60% 미만으로 뚝
"내년 경제 안개가 낀 상태"**

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가운데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계속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.

투자자들은 다음달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60% 밑으로 낮춰 잡았다.

15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JP모건 자산운용의 유럽·중동·아프리카 시장 수석전략가인 카렌 워드는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